

B411

한국산 날개망둑 *Favonigobius gymnauchen*의 생태학적 연구

김종연¹, 노용태², 최 윤^{3*}

군산대학교 양식학과¹, 건국대학교 생물학과², 전북대학교 생물과학부³

한국산 날개망둑의 생태와 분포를 검토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우리 나라 서해와 남해 연안 15개 지점에서 표본을 채집하였고, 전북 군산 연안과 충남 웅천의 표본들을 중심으로 난소의 성숙과정과 산란시기, 유어의 저작시기, 성장, 소화관내용물 등을 분석하였다. 난소의 발달과정은 3~6월의 성숙기, 7월의 완숙 및 산란기로 구분되었고, 7월 중·하순에 산란을 마친 개체들은 모두 폐사하였다. 8월 초에는 전장 10mm내외의 개체들이 저작생활을 시작하였고, 천해역에서 급속히 성장하여 10월 무렵에 전장 35~55mm에 달했다. 수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수심이 약간 깊은 조하대부근으로 이동하여 월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관 내용물은 계절별, 체장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Copepoda가 67.69%로 가장 많았고, Decapoda 15.00%, Cirripedia larvae 4.96%순이었다. 또 Copepoda 가운데 가장 많은 섭식량을 보인 종은 *Corycaeus affinis*, *Calanus sinicus*, *Paracalanus parvus*, *Microsetella* sp. 등이었다.

B412

좁구굴치 *Hypseletris swinhonis*의 생식생태 및 산란행동

김병직*·김익수

전북대학교 생물과학부

1995년 3월부터 6월까지 전북 삼례와 부안에서 채집한 소형담수어류인 좁구굴치의 생식생태와 산란행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종은 암수 공히 만 1년이 되면 생식가능하며 산란성기(4월중순~5월중순)의 생식소성숙도지수(GSI)는 암컷이 20.4%, 수컷이 2.48%이다. 좁구굴치는 일부다처의 생식체계를 유지하면서 산란장이라는 필수적인 자원을 확보하므로써 암컷을 획득하는 자원방어형이다. 산란기 암컷의 GSI와 난의 크기를 기준으로 좁구굴치는 2회정도 산란한다고 보고, 만 2년생 수컷은 후두부가 뚜렷하게 부풀어서 암컷을 쉽게 유인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산란행동은 산란장을 선택하고 정리하는 nest selecting phase, 암컷을 유인하여 산란, 방정을 통해 수정란이 형성되는 sexual phase, 산란후 정리 및 수정란이 부화할 때까지 보호하는 parental phase의 3단계로 구분되었다.